

公報發刊 現況과 改善해야할 事項



鄭 東 榮
특허청 <산업연구원 파견> 서기관

目 次

1. 머리말
2. 공보의 종류
3. 공보발간 목적
4. 공보발간 현황
5. 공보류의 이용현황
6. 개선할 사항
7. 맺는말

<이번호에 전제>

1. 머리말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있어 특허공보류의 발행은 심사업무와 일체화되는 필수불가결의 법적 절차이며 새로운 기술정보와 이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므로서 기업에서의 기술개발과 기업경영에 유용하게 이용케 함은 물론 중복연구와 이중투자 및 부실한 권리의 설정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제도가 있는한 어느 국가나 특허공보류의 발행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최초 공보는 1948. 6. 20 발행한 특허공보 제 1호이며 상표공보는 5년후인 1953. 11에 발행하였고 공개공보는 1983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이 발행되기 시작한 공보류는 현재 6종의 공보를 년 1200여회 발간하여 국내 220여개 공공기관과 도서관 및 연구소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 러시아, WIPO 주요국가의 특허청과 국제기관에도 교환자료로 배포하여 산업정보 자료로 널리 활용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공보는 예산 또는 인력 등의 제약으로 아직까지 특·실공개공보에 출원서 전문을 게재치 못하고 있는 등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다수 있으며 공보류가 정보화사회의 핵심 기술정보자료로서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공보의 전자화 및 전산망구축도 시급히 추진해야할 과제라 할 것이다.

2. 공보의 종류

현재 특허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공보류는 공개특허공보, 공개실용신안공보, 특허공보, 실용신안공보, 의장공보, 상표공보 등 6종이 있으며 그중 공개공보에는 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특·실 출원서를 심사전에 공개하게 되며 특·실 공보 및 상표공보는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출원내용을 게재 발간하게 되고 이의 신청제도가 없는 의장공보는 심사와 등록을 필한후 등록된 내용을 게재 발간하고 있다.

그의 우리 기술의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특허 공보를 영문으로 요약 가공한 “영문특허초록”을 발간하여 대외국 기관에 교환자료로 배포하고 있다.

3. 공보발간 목적

공보의 발간은 최신기술정보의 전파와 부실 권리를 방지하는데 주요목적이 있는 것이다. 산업재산권정보는 비단 최근개발기술의 정보뿐만아니라 권리정보 기타 산업정보자료로서 기업경영과 불필요한 연구나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서 현대 산업사회의 핵심 정보자료이다. 이들 자료를 파악 분석하면 선진 업계계의 기술동향은 물론 경쟁기업의 기술개발방향과 경영정보로서 예측이 가능하게 되므로 기업의 필수적 주요 정보자료인 것이다. 특허제도가 있는한 어느 나라에서나 형식은 다르다 하더라도 공보류를 발행하고 있는바 그 중요목적을 다시 간추려 보면, 첫째 신기술을 산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산업발전에 기여코저 하는 것이며, 둘째, 중복연구나 이중투자를 예방하고, 셋째, 심사관이 심사한 출원내용을 일반에게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케 하므로써 부실권리의 설정을 방지하는데 있는 것이다.

4. 우리나라 공보류의 발간현황

우리나라의 공보발간 자취를 살펴보면 1946년 특허국이 설치된 1948년 최초 발행된 공보로부터 시작된다. 1948. 6. 20 발행한 특허정보 1호는 특허4건, 실용신안 6건, 도합 10건을 혼합수록한 창간호이며 그후 6.25 사변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부산피난중 1952. 10. 20 발간된 특허공보에는 최초로 상표등록 72건을 게재하여 합본으로 발간하였다. 공개 공보는 1980. 12. 31 개심법에 따라 1983. 3. 25 최초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발간된 공보는 그간의 급속한 산업발전과 산재권 출원건수 세계

6위(91. 기준)라는 수준을 말해주듯 1992년에는 6종의 공보를 1051회 발행하였으며 수록건수가 119, 319건이고 발행부수도 255,000권에 달하고 있다.

가. 공보발간 형태

현재 발간하고 있는 공보류는 국배판(B5) 크기로 발간하고 있으며 권리별 게재순서는 IPC 분류별(또는 류별) 출원번호순으로 게재하고 있다. 권당 게재면수는 공개특허공보실용 및 특허공보는 300면 기준으로 발간하고 그의 공보는 200면 기준이며 모두 양면으로 발간하고 있다. 권당 평균게재 건수는 공개특허 140건, 공개실용 180건, 특허공보 33건, 실용공보, 50건, 의장공보 150건 상표공보 660건이다. 또한 월평균 발행회수는 공개특허 18회, 공개실용 10회, 특허공보 39회, 실용공보 13회, 의장 7회, 상표 5회(93년 기준) 수준이다. 회당 발행부수는 특허·실용은 250부, 의장·상표는 각각 200부씩 발간하여 국내외에 배포하고 있다.

나. 공보종류별 게재내용

공보종류별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연도별 공보발간 현황

연도별 공보종류별 발간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공보의 배부

발간한 공보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도서관 및 상공공업에 무상 배부하고 있으며 지방 소재 산업계나 열람자를 위하여 1978년 부터 전국 15개 주요도시에 특허자료지방열람소를 설치하고 이곳에 열람용 공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외국으로 자료의 상호교환 또는 수요국의 요청에 따라 22개국 및 국제기관에 배부하고 있다.

5. 공보의 이용현황

특허청 열람실(530평)에는 우리가 발간한 공보류와 외국의 각종 산업재산권공보류를 포함한 23만 여권의 공보책자와 마이크로필름 및 CD-ROM 등 전자자료로 된 공보류를 소

공보 종류별 게재내용

| 구 분 | 종 류 별 | 종 류 별 | | | | | |
|---------------------------|-------|-------|------|-----|-----|-----|-----|
| | | 공개특허 | 공개실용 | 특 허 | 실 용 | 의 장 | 상 표 |
| 분류기호, 출원번호, 출원연월일 | | ○ | ○ | ○ | ○ | ○ | ○ |
| 출원인의 성명, 주소 | | ○ | ○ | ○ | ○ | | ○ |
| 발명자(고안자)의 성명, 주소 | | ○ | ○ | ○ | ○ | ○ | |
| 공개번호 및 연월일 | | ○ | ○ | | | | |
| 공고번호 및 연월일 | | | | ○ | ○ | | ○ |
| 발명(고안·물품)의 명칭 | | ○ | ○ | ○ | ○ | ○ | |
| 요약서 | | ○ | ○ | | | | |
| 청구의 범위 | | ○ | ○ | ○ | ○ | ○ | |
| 명세서 | | | | ○ | ○ | | |
| 도 면 | | ○ | ○ | ○ | ○ | ○ | |
| 우선권주장사실(또는 일자) | | ○ | ○ | ○ | ○ | ○ | |
| 등록번호 및 연월일 | | | | | | ○ | |
| 상 표 | | | | | | | ○ |
| 지정상품 및 그류구분 | | | | | | | ○ |
| 연합하고자 하는 등록(출원) 번호 | | | | | | | ○ |
| 대 리 인 | | ○ | ○ | ○ | ○ | ○ | ○ |
| 담당심사관 | | | | ○ | ○ | ○ | ○ |
| 일반공고사항(공시송달, 정정공고등) | | ○ | ○ | ○ | ○ | ○ | ○ |
|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 ○ | ○ | ○ | ○ | ○ |

(사진 견본 포함)

연도별 공보 발간 현황

| 종별 | 계 | | 특허공보 | | 실용공보 | | 의장공보 | | 상표공보 | | 공개특허공보 | | 공개실용공보 | |
|---------|-------|---------|-------|--------|-------|--------|-------|---------|------|---------|--------|---------|--------|---------|
| | 회수 | 건수 | 회수 | 건수 | 회수 | 건수 | 회수 | 건수 | 회수 | 건수 | 회수 | 건수 | 회수 | 건수 |
| 계 | 7,993 | 961,094 | 3,086 | 66,423 | 1,702 | 93,159 | 1,102 | 165,004 | 555 | 306,022 | 975 | 160,399 | 573 | 170,087 |
| 1978 이전 | 1,082 | 128,657 | 356 | 7,312 | 390 | 21,893 | 187 | 45,293 | 149 | 54,159 | | | | |
| 1979 | 197 | 16,416 | 101 | 2,008 | 43 | 2,244 | 29 | 2,664 | 24 | 9,500 | | | | |
| 1980 | 201 | 18,589 | 86 | 1,716 | 45 | 2,325 | 48 | 4,856 | 22 | 9,692 | | | | |
| 1981 | 199 | 16,018 | 102 | 2,147 | 50 | 2,649 | 34 | 3,964 | 13 | 7,258 | | | | |
| 1982 | 218 | 18,245 | 115 | 2,408 | 53 | 2,686 | 35 | 4,006 | 15 | 9,145 | | | | |
| 1983 | 354 | 40,050 | 140 | 2,921 | 62 | 3,083 | 56 | 6,568 | 20 | 12,673 | 60 | 10,429 | 6 | 4,376 |
| 1984 | 347 | 44,814 | 131 | 2,495 | 52 | 2,908 | 60 | 7,111 | 23 | 14,946 | 55 | 9,383 | 26 | 7,971 |
| 1985 | 339 | 50,326 | 102 | 1,975 | 59 | 3,364 | 68 | 8,330 | 26 | 16,910 | 51 | 9,067 | 33 | 10,680 |
| 1986 | 369 | 56,309 | 111 | 2,217 | 65 | 3,741 | 52 | 6,721 | 29 | 18,436 | 60 | 9,606 | 52 | 15,588 |
| 1987 | 474 | 68,202 | 115 | 2,198 | 79 | 4,191 | 98 | 12,120 | 28 | 17,801 | 85 | 12,498 | 69 | 19,394 |
| 1988 | 505 | 77,210 | 136 | 2,712 | 84 | 4,550 | 74 | 10,218 | 30 | 19,664 | 107 | 16,904 | 74 | 23,162 |
| 1989 | 716 | 95,538 | 224 | 5,734 | 167 | 9,472 | 85 | 11,875 | 38 | 24,823 | 122 | 20,458 | 80 | 23,176 |
| 1990 | 974 | 106,839 | 425 | 9,229 | 203 | 11,409 | 92 | 13,708 | 43 | 28,314 | 140 | 22,325 | 71 | 21,854 |
| 1991 | 967 | 104,562 | 455 | 10,261 | 178 | 9,594 | 85 | 12,750 | 43 | 28,340 | 133 | 22,209 | 73 | 21,408 |
| 1992 | 1,051 | 119,319 | 487 | 11,090 | 172 | 9,050 | 99 | 14,820 | 52 | 34,361 | 162 | 27,520 | 79 | 22,478 |

장하고 열람, 복사 서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방특허자료열람소에서 국내공보를 비치하고 열람 및 복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최근 2년간의 특허청 열람실을 통한 특허자료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1991년도에는 총이용자, 32,099명이 324,151건을 열람하였는데 그중 공보류 이용이 88.7%, M/F류가 8.2% 기타 도서류가 3.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1992년은 34,350명이 340,199건을 열람하였고 자료종류별 이용 비율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최근 2년간의 자료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6. 개선되어야 할 사항

신기술의 개발은 특허정보의 활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특허정보의 핵심은 두 말할 여지없이 특허공보류인 것이다. 따라서 특허공보의 가치는 더욱 높아가고 있다. 시간으로 승부를 겨루는 기술경쟁사회에서 특허정보자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만큼 공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스피드 시대에 맞추어 신속히 보급되어야 하고 그 내용도 충실한 양질의 자료이어야 할 것이며 방대한 양의 자료임을 감안하여 이용의 편의를 위한 발간체제의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개선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소요예산만 확보되면 개선이 가능한 단기개선방안과 둘째로 공보의 전자화 같이

예산뿐 아니라 관련 업무개발도 뒤따라야 할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① 공개공보에 출원서 전문을 게재하는 문제 ② 공보의 IPC 분류별 발간 ③ 특·실공보의 초록발간 ④ 요약서의 내실화 등이 우선 실현되어야 할 사항이고 장기에 걸쳐 개선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① 공보의 전자화 (CD-ROM optical Disk, Micro Film Magnetic Tape)를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은 특허청 정보자료국에서 이미 업무개선 계획을 수행 추진중에 있거나 예산 및 인력의 부족으로 그 시행을 미루어 오고 있는 사항들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업체, 연구기관 등 자료이용이 빈번한 수요처와 특허청에서 실시한 산업재산권자료의 설문조사(정보자료국 실시, 91. 10. 17-11. 30)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들이다.

이들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코자 한다.

가. 출원내용의 전문 게재

특허법 제64조에 의하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용신안도 이와 동일한 제도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출원내용을 등록되기 전 조기에 공개하는 목적은 최근개발기술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이중투자나

특허자료활용 현황

* ()은 구성비

| 자료명 | 구분 | '91년도 누계(A) | '92년 도 | | | | 누계(B) |
|------|----|----------------|--------|--------|--------|--------|----------------|
| | | | 1/4 | 2/4 | 3/4 | 4/4 | |
| 공보류 | 명 | 28,460(88.7) | 7,477 | 8,459 | 7,703 | 6,699 | 30,338(88.3) |
| | 권 | 289,023(89.2) | 76,281 | 77,853 | 72,886 | 65,906 | 292,926(86.1) |
| M/F류 | 명 | 2,640(8.2) | 593 | 789 | 719 | 499 | 2,600(7.6) |
| | 권 | 28,877(8.9) | 8,723 | 11,984 | 10,476 | 5,807 | 26,990(10.9) |
| 도서류 | 명 | 999(3.1) | 362 | 426 | 305 | 319 | 1,412(4.1) |
| | 권 | 6,251(1.9) | 2,670 | 3,027 | 2,266 | 2,320 | 10,283(3.0) |
| 계 | 명 | 32,099(100.0) | 8,432 | 9,674 | 8,727 | 7,517 | 34,350(100.0) |
| | 권 | 324,151(100.0) | 87,674 | 92,864 | 85,628 | 74,033 | 340,199(100.0) |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기술개발이나 기업경영에 이를 활용케 하는데 그 주요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용자가 기술내용을 신속하고 보다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출원서 전문을 게재하여야만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공개 공보에는 소요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전문 게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공개공보의 게재내용

현행 공개공보(특허, 실용)에는 출원서에 게재된 내용중 서지적사항, 발명(고안)의 명칭, 요약문,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및 청구범위만 게재하고 “명세서”는 게재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발명(고안)의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기 힘들어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다.

(2) 외국의 예

공개제도가 있는 영, 프, 일, WIPO EPO 등 선진국은 모두 출원전문을 게재하고 있다. (단, 일본의 경우 특허만 전문게재)

(3) 문제점

명세서가 게재되어 있지 않아 발명(고안)의 내용을 명료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필요한 경우 특허청(출원과)를 직접 방문 열람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어 충음을 다투는 정보화시대에 기술정보자료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보의 이용빈도가 높은 지방소재 연구소나 기업 등에 큰 손실을 줄 뿐 아니라 잘못 연구활동 또는 경영에 치명상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4) 대안

특·실공보에 출원 전문을 게재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그 실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허행정의 전산화, 심사적체 해소 문제 등 특허청에도 당면한 재정수요가 많기는 하지만 공보가 특허정보자료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함은 기술개발을 서둘러야할 우리 산업계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예산확보나 재정자립수준이 향상될때까지 기다릴 수 만은

없는 것이므로 선행기술정보의 이용빈도가 높은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외국인 출원분부터 단계적으로 전면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단계-외국인 출원 특허
- 2단계-내·외국인 특허전반
- 3단계-특·실 전반

공개공보는 선행기술조사가 주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므로 영, 일, EC, 등 기술선진국의 첨단개발기술 동향파악이 가장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이 출원한 특허부터 전면게재하고 다음 단계로 내국인 출원분까지 게재하고 최종 단계에 특허·실용 모두를 전면게재하는 단계적 시행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92. 내·외국인별 출원현황

| 구분 | 내국인 | 외국인 | 계 | 비고 |
|----|---------|---------|---------|----|
| 특허 | 15,952건 | 15,121건 | 31,073건 | |
| 실용 | 27,923건 | 742건 | 28,665건 | |

나. 공보의 IPC 분류별 발간

현행 특·실 공보는 IPC 분류별 발간 체제가 아니므로 필요한 기술분야를 검색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분야가 복잡·다양하고 자료의 양도 방대하여 선행 기술조사시 시간과 인력의 소모가 적지 않다.

(1) 현행 발간형태 및 문제점

현행 특·실 공보류는 200회 또는 300회 기준으로 류별 출원일자 순으로 모아 발간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 검색시 불필요한 분야도 자료도 함께 다루어야 하므로 시간의 낭비가 많고 공보를 구입하는 기업이나 연구소 등 수요처에서도 불필요한 분야도 수집·관리하게 되어 구입경비는 물론 공보의 관리 문제도 뒤따르게 된다.

(2) 개선방안

특허청 입장에서 보면 현행 특·실 공보는 200회 또는 300회 기준의 책자를 발간하고 있어 IPC 분류별로 발간할 경우 공개(또는 공고) 건수가 적은 류는 발간이 지연되어 신속

한 기술전파의 목적 달성이 어렵고 심사적제가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책자가 아닌 낫장으로 발행한다하더라도 자료의 취급·관리가 어렵고 예산도 추가소요되어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공고) 전수가 증가하여 문제점이 스스로 해소될 때까지 기다릴 수 만은 없는 것이다. 정보의 가치는 오로지 시간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공보발간이 늦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IPC 분류별 발간단 단계로 Sub-Section, 또는 Class, Group별로 묶어 발행하는 방안이나 산업종별로 분류 발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다. 특허, 초록 발간

우리 특허공보를 예로 볼때 특허1건당 평균 게재회수는 10페이지를 상회하는 분량이고 기술의 보편화에 따라 그 내용도 더욱 복잡화되고 있어 자료의 검색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모두 읽어보기란 어려운 실정이므로 발명의 내용을 요약가공한 초록류를 발간보급한다면 긴요하게 이용될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들 2차특허정보자료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 특허청에서도 기술선진국의 초록을 구입하여 심사용과 일반열람용으로 제공하고 있고 일부 대기업에서도 이들 초록류를 구입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허청에서 직접 발간 보급한다면 특허정보로서 많이 이용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산업발전에도 기여하고 심사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된다.

라. 요약서의 내실화

(요약서에 관하여는 본지 5월호에 기술한 바 있으므로 생략코자함)

마. 전자공보의 발행(CD-ROM 제작)

특허공보는 기술정보의 중심자료인 만큼 정보화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발간·보급 되어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특히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특허정보의 의존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때인 만큼 공보의 전자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영, 일, EPO 등

선진국은 Paperless화가 급속히 추진중에 있고 공보류는 이미 많은 양이 CD-ROM으로 발간 보급되고 있으며 우리 특허청에서도 일부 자료를 CD-ROM으로 입수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 수량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CD-ROM 1권에는 특·실출원서 전문 5,000건을 수록(일본의 경우) 할 수 있는 다용양 기록 소재이다.

한국 공개공보의 경우 월 30회 발간하는 특·실공개공보에 총 4,500여건을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CD-ROM으로 발간한다면 월 1회, 1권 발행으로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CD-ROM 공보 발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예산확보, 관련기술 및 업무개발, 관련기기의 생산, 보급,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을때까지의 여건성숙, 공개지연 우려 등 여러 가지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방대한 자료의 관리 문제와 신속한 자료 검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피할 수 없는 길이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도 전자공보의 발간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7. 맺는 말

현대사회의 공통된 특징은 사회 전부가 모두 바쁘다는 것이다. 각종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화사회, 개방경쟁사회이기 때문이다. 기업인, 엔지니어 학자, 상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새로운 정보를 접해야 되고 이들을 수집 분석, 활용하여야만 경쟁대열에 설 수 있는 것이다. 그중 특허정보는 기술개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정보자료로서 기술혁신과 특허정보와는 수레와 바퀴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정보의 중심인 공보류는 바쁜 사회,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가볍고, 빠르고 정확하고 간편한 자료로 발간 보급되어야 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